

# 初期靑磁 編年問題 再論

崔 健\*

- I. 머리말: 初期靑磁의 概要와 문제 제기
- II. 연구 성과의 검토
- III. 자료의 분석과 문제 제기
- IV. 맺음말

## I. 머리말: 初期靑磁<sup>1</sup>의 概要와 문제 제기

우리가 高麗靑磁라고 부르는 청자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때가 고려시대가 아니라 통일 신라시대 후기라고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 전 일이 아니다.<sup>2</sup> 또 중국의 여러 磁窯들 가운데

\* 朝鮮官窯博物館 관장

<sup>1</sup> 초기청자(백자를 포함하여)는 일정한 양식적 특징을 갖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日暈底(中國은 玉璧底라고 부름)樣式의 碗과 花瓣形 標匙가 공반하며 거의 대부분 문양이 없는 素文(일부 丸影連瓣文을 제외하고)을 특징으로 한다. 초기청자에 관해서는 野守建, 『高麗陶磁の研究』(清閑舍, 1945)의 일훈저완에 관한 언급 이후 鄭良謨에 의해 구체적인 분류와 특징에 대한 규명이 시작되었다. 鄭良謨, 「高麗靑磁」, 『高麗靑磁名品特別展』(국립중앙박물관, 1998), pp.268-283. 이후 崔健, 「韓國初期靑磁의分類と變遷」, 『東洋陶磁』 Vol.22(東洋陶磁學會, 1992-94), pp.41-64이 있다.

<sup>2</sup> 초기청자에 관한 최근까지 연구 성과 소개와 연구사적 검토는 崔健, 「高麗靑磁의 發生問題 — 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 『美術史論壇』 創刊號(한국미술연구소, 1995), pp.269-294.

특히 양자강 하류 남단에 위치한 越州窯 계통의 청자 제작 기술이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청자 발생의 절대 조건이 되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sup>3</sup> 사실 현대적 학문으로 도자사 연구가 시작된 20세기 전반부터 청자의 발생 시기에 관한 논의는 현존하는 最古의 절대편년자료인 <淳化四年(993년) 銘青磁>를 기준으로 하여, 이 자료가 한반도에서 만든 초보적인 청자라고 생각하여 발생 시기를 10세기 후기로 비정하였는데 이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는 원칙과 같이 취급되고 있었다. 물론 1960년에 중국 월주요 청자의 완성 시기를 盛唐代(약680-750년)로 보고 한반도에서의 방조는 늦어도 약 1세기 이후 흥덕왕대(826-835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sup>4</sup> 이 새로운 견해는 기존에 초창기의 청자를 <淳化四年銘青磁>로 보는 절대적 인식의 틀 안에서 별다른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통일신라 청자를 의미하는 9세기 발생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중국 玉璧底碗과 전남 강진요의 日暈底碗이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완이 중국 당 후기(8세기 후기-9세기 전기)에 유행했던 양식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늦어도 중국에서 이 완이 사라지기 이전 늦어도 9세기 중기에는 한반도에서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sup>5</sup> 한마디로 신라청자에서 시작하여 고려청자로 완성을 보았다는 말이 되며, 이러한 입장의 신라시대 청자 발생설은 연구가 진행될 때마다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면서 강화되어 갔다.

1980년대 이후 초기청자와 관련해 획기적인 요지 조사 보고가 줄을 이었다. 용인서리요 발굴과 4개의 퇴적층 분석에 따른 유물 상호간 상대편년자료 확보와 고창 용계리요 출토 <太平壬戌(1022년) 銘平瓦片>, 황해도 원산리요 최상층 출토의 <淳化三年·四年(992·993년) 銘青磁>,<sup>6</sup> 그리고 1997-98년 발굴한 시흥 방산대요와 같이 한반도 중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전축

<sup>3</sup> 한국에서 처음 만들었던 청자들이 중국 越州窯 청자의 제작기술 및 조형과 유사하다고 보고, 중국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월주요 기원설은 小山富士夫가 제기하였다. 小山富士夫, 「高麗의古陶磁」, 『陶器講座』 22卷(雄山閣, 1937). 그 이후, 高裕燮(1939), 野守健(1945), 尾崎洵盛(1960), 吉岡完佑(1979), 長谷部樂爾(1971), 崔淳雨(1979), 鄭良謨(1979), 崔健(1987), 金載悅(1988) 등이 그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새로운 자료들을 보완하여 월주요 기원설을 지지한 바 있다.

<sup>4</sup> 尾崎洵盛, 「高麗陶磁の起源に關する問題の考察」, 『陶說』 82, 85-88호(1960) 참조.

<sup>5</sup> 吉岡完佑는 강진의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기종인 일흔저완이 중국의 경우 9세기의 특징으로 보고, 강진이 장보고의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완도에 인접해 있으므로 특히 중국과 문물의 교류가 활발했던 청해진시대에 중국과 똑같은 청자를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高麗青磁의發生에 관한研究』(승전대학교박물관, 1979).

<sup>6</sup> 원산리 요지는 1989-90년 발굴하여 현장에 복원 전시되어 있다.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요지 발굴간략보고」, 『조선고고연구』(1991-92); 『조선도자사연구』 삼국-고려(춘추각, 1995). 요지 복원 이후 현장을 직접 답사한 南秀雄의 「圓山里窯跡と開城周辺の青磁資料」, 『東洋陶磁』 Vol.22(東洋陶磁學會, 1992-94), pp.105-

요들에서 신뢰도 높은 절대편년자료와 상대편년자료가 학술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조사들이 특별히 관심을 끌었던 것은, 용인서리요에서 확인된 4개의 고고학적 층위 때문이다. 제1기층(最下層)에서 소위 先日暈底라고 명명한 輪形底에 비해 굽 폭이 넓고 개성이 강한 청자(백자)가 출토되었고 제2기층에서 선일훈저완과 (초기)일훈저완이, 그리고 제3기층과 제4기층에서는 각각 전형적인 한국식 일훈저완과 輪形底碗이 출토되어, 한반도에서 만든 초기청자는 “선일훈저완→(초기)일훈저완→일훈저완→윤희저완”으로 변천한다는 움직일 수 없는 자료가 등장한 것이다. 이어, 전축요인 원산리요의 閉窯를 〈淳化三年·四年(992·993년) 銘靑磁〉를 기준으로 10세기 말-11세기 초로, 방산대요에서 오대 10세기 전기 越州窯靑磁와 비교되는 유물의 출토로 閉窯時期를 10세기 전기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되었는데, 이 역시 신뢰도를 높이 인정받고 있다.<sup>7</sup>

뒤이어 전축요인 서리요(제1-2기층)와 방산대요와 원산리요를 같은 조건과 같은 기간에 운영된 청자(백자)요라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전제 아래, 서리의 전축요 개요시기를 10세기 전기라고 하면서 이때 선일훈저완을 포함한 청자(백자)로 시작하여 10세기 말-11세기 초에 전축요를 폐기하고 토축요(제3-4기층)로 개축하면서 토축요식의 일훈저완을 제작했다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sup>8</sup> 이 경우 선일훈저완 이후 일훈저완으로 전환된 때는 10세기 말-11세기 초이며 고창 용계리요 출토 일훈저완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太平壬戌(1022년) 銘平瓦片〉의 의미가 대폭 부각되었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한반도 최초의 청자는 선일훈저완이며, 옥벽저완과 똑같은 일훈저완은 중국에서 유행이 끝난 1세기 이상 뒤에 옛 중국 찻그릇인 옥벽저완을 모델로 리바이벌한 특별한 것이라는 주장과, 또는 당 말-오대 전기에 옥벽저에서 윤희저로의 변화 과정인 玉環底碗이라는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을 방조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sup>9</sup>

최근 2000년 들어 제기된 이러한 주장들은 자료에 대한 해석도 명쾌하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의 학술조사 성과를 분석한 분명한 절대편년자료

120가 있으며, 비교적 상태가 좋은 사진 자료는 『조선유적유물도감』 12권 고려 3(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92)에 게재되어 있다.

<sup>7</sup> 이종민,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2001. 3), pp.65-98.

<sup>8</sup> 이종민, 「韓國 初期靑磁의 形成과 傳播—博築窯와 土築窯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研究』 240(2003. 12), pp.51-73.

<sup>9</sup> 윤용이, 「韓國靑瓷의 成立」, 『美術史論壇』 15(한국미술연구소, 2002).

를 근거로 하여 한반도 초기청자와 상호 비교를 통해 도출된 견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한층 높아 보인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기준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몇 가지 수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견되는데, 이 문제의 해석과 입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유물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은 대부분 핵심적 자료를 직접 비교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기본 방향 설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초기청자 연구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월주요의 碗과 鉢 같은 그릇은 구조가 단순하고 전체적으로 평이하여 조형의 특징을 간파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을 제외하고, 중국 측 자료의 사진 상태와 도면 및 해설이 빈약하여 항상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안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까지 전개되어 온 초기청자 연구 성과들에서 유물 분석과 해석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 특히 논리 전개 과정에서 초점으로 등장해 있는 先日暈底碗 문제, 玉璧底와 日暈底碗 관계, 그리고 용인서리요(제1-2기층)와 방산대요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비중을 두기로 한다.

## II. 연구 성과의 검토

1980년대 이후 초기청자와 관련해 비중이 큰 유적들이 줄지어 조사되었다. 용인서리요의 발굴로 4개의 퇴적층위와 유물 상호간 상대편년자료가 확인되고,<sup>10</sup> 고창용계리요 출토 日暈底碗과 <太平壬戌(1022년) 銘平瓦片>과의 관련 여부가 제기되었다. 이어서 황해도 원산리요 발굴조사에서 <淳化三年·四年(992·993년) 銘青磁>가 퇴적 최상층에서 조사되어 초기청자의 하한을 가리키는 절대편년자료로 인정되는 한편, 강진요의 정밀지표조사에서 오십여 개소의 초기청자요를 대상으로 일흔저원을 中國式 日暈底碗과 韓國式 日暈底碗, 退化(變形) 日暈底碗으로 구분하고 중국식에서 한국식을 거쳐 퇴화하여 유행저로 교체된다는 견해가 제

<sup>10</sup> 서리요지는 고고학적 층위조사에 의해 4개의 유물 포함층이 발견되어 초기청자(백자)의 양식 분류와 상대편년이 가능해졌다. 『龍仁西里高麗白磁窯』(湖巖美術館, 1987)와 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 pp.5-7; 同著, 「龍仁初期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書」, 『韓國磁器發生에 관한 諸問題』(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pp.45-53; 전승창,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 檢討」, 『용인서리 고려백자요지 재조명』(용인시·용인문화원, 2001), pp.15-32.

시되었다.<sup>11</sup> 또 중국도자에서 절대편년을 갖는 玉璧底碗의 형식을 분석하여 7-8세기를 맹아기로 보고 8세기 4/4분기에 증가하여 9세기 전기가 성행기이며 이후 쇠퇴하여 874년을 끝으로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sup>12</sup>는 한반도에서 옥벽저완을 그대로 방조한 일훈저완의 발생 하한이 늦어도 9세기 중기 이후로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었다.

이렇게 1980년대 이후 옥벽저완과 일훈저완을 직접 연관하며 발생 시기를 추적한 9세기 발생설이 등장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연구의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淳化三年·四年(992·993년) 銘靑磁>에서 日暈底碗으로 옮겨갔다. 이제 더 이상 <淳化銘靑磁>를 초창기 청자로 보지 않게 된 것이다(9세기 발생설을 요약한 <표 1> 참조).

그런데 용계리요 출토 자료 가운데 하나인 <太平戊寅(1022년) 銘平瓦片>과 유사한 魚骨文의 瓦片이 日暈底碗을 생산한 窯의 벽체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일훈저완의 제작시기가 太平壬戌 시대인 1022년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sup>13</sup> 이어 <淳化三年·四年(992년·993년) 銘靑磁>를 출토한 황해도 원산리요와 용인서리요(1-2기층)가 같은 博築窯 계열이며 淳化年間을 포함하는 10세기 후기에 같이 開窯하여 先日暈底碗 등을 만들다가, 서리요의 경우 土築窯로 개축한 후 백자 일훈저완 등을 만들었는데, 그 서리요의 일훈저완이 용계리요 출토의 <太平壬戌銘平瓦片>과 같은 기간에 제작된 일훈저완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초창기 청자로서 절대편년자료인 <淳化三年·四年(992년·993년) 銘靑磁>를 지지하는 10세기 발생설 측은 용인서리요, 용계리요, 원산리요의 자료를 검토하여 자신들의 논리적 토대를 강화하였다. 이를테면, 초기청자는 처음 淳化年間인 10세기 후기에 선일훈저완으로 시작하여 太平壬戌 시대인 11세기 전기에 일훈저완으로 전개되고 후에 윤행저완으로 변천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10세기 발생설을 강화한 編年案을 제기하였다. 물론 이 편년

<sup>11</sup> 여러 요지들 가운데 강진군 용운리를 중심으로 계율리, 사당리, 삼흥리 등에 밀집 분포하는 초기청자시대의 요지는 50여 개소에 이른다. 초기청자의 경우 양식 변천 과정이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특성을 갖지만, 표식적 기종인 일훈저완의 형태 변화를 기준으로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崔健, 「韓國初期靑磁의分類と變遷」, pp.45-50과 두 단계로 구분한 『康津의靑磁窯址』(海剛陶磁美術館, 1992), p.28의 表(II-1, 類型分類略解) 참조.

<sup>12</sup> 절대편년이 있는 당·오대·북송시대의 분묘와 탑 등의 유적에서 출토한 자료가 龜井明德에 의해 조사 발표되었다. 龜井明德, 「唐代玉璧高臺의出現と消滅時期に考察」, 『貿易陶磁』 12(1993) 참조. 중국에서 조사된 239개소의 유적에서 절대편년 일훈저완 18건과 상대편년 6건을 검토한 결과, 7-8세기를 맹아기로 보고 8세기 4/4분기에 증가하며 9세기 전반이 성행기, 9세기 후반은 소멸기이며 874년을 끝으로 일훈저완은 다시 발견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 측의 자료는 崔健, 「高麗靑磁의發生問題—고려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pp.283-284 참조.

<sup>13</sup> 윤용이, 앞의 논문, p.159.

표 1 초기청자 변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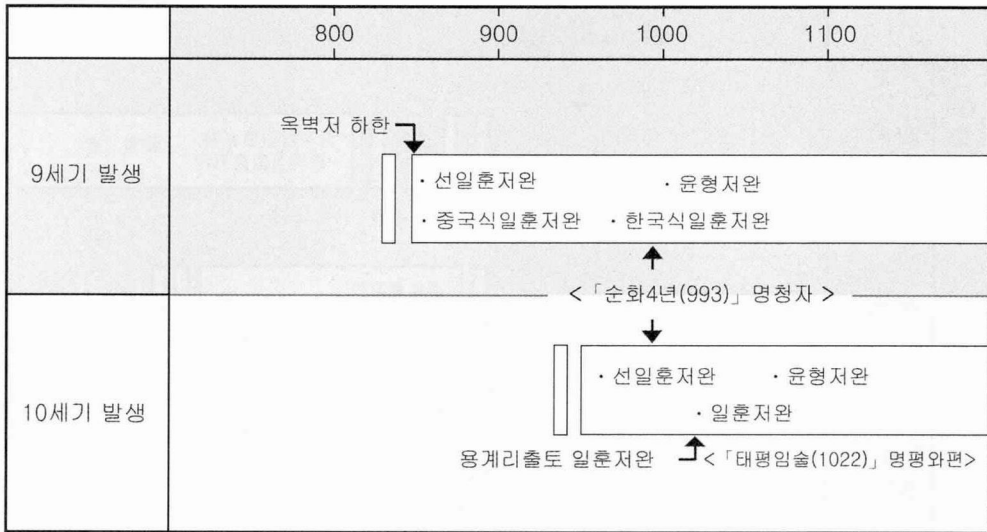
		800	900	1000	1100
토축요	강진	옥벽저 하한 · 중국식일훈저완 · 한국식일훈저완 / 윤행저완			
	서리	· 선일훈저완 · 한국식일훈저완 / 윤행저완			
전축요	원산리	· 선일훈저완 원산리요지 출토 <「순화3·4년」 명 청자>			

안은 한반도에서 만든 일훈저완의 경우 중국 옥벽저완과 직접 관련이 없고 1세기 또는 그 이상 이전 후 비슷한 일훈저완이 리바이벌된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 초기청자 발생 시기에 관한 인식은 <淳化三年·四年(992년·993년) 銘靑磁> 시대의 선일훈저완을 초창기로 보고 이어 <太平壬戌銘平瓦片> 시대의 일훈저완을 발전기로 보는 관점과, 월주요에서 옥벽저완이 소멸되기 전인 9세기 중반에 한반도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 옥벽저와 똑같은 중국식 일훈저완으로 초창기를 열고 이어 발전기에 한국식 일훈저완으로 변천한다는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어 있다. 전자는 10세기 후기 발생을 주장하는 측이며 후자는 9세기 중기 발생을 주장하는 측으로, 이 양측은 처음부터 일훈저완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현저하여 의견을 좁힐 만한 여지가 없었다(<표 2> 9세기설과 10세기설 참조).

1997-98년 방산대요 출토 자료가 등장하면서 초기청자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방산대요는 전축요 요구의 전모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출토품으로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출토 유물들은 방산대요가 中國五代 前期에 開窯하여 대규모 생산활동을 하다가 圓山里窯와 비슷한 10세기 말-11세기 초에 閉窯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러한 방산대요 운영시기에 대한 새로운 編年觀은 같은 구조의 전축요를 만들고 생산한 원산리요와 용인서리요(제1-2기층)를 같은 계통으로 보고 운영시기도 그와 같은 시기로 판단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다. 말하자면, 용인서리 전축요의

표 2 초기청자 변천표(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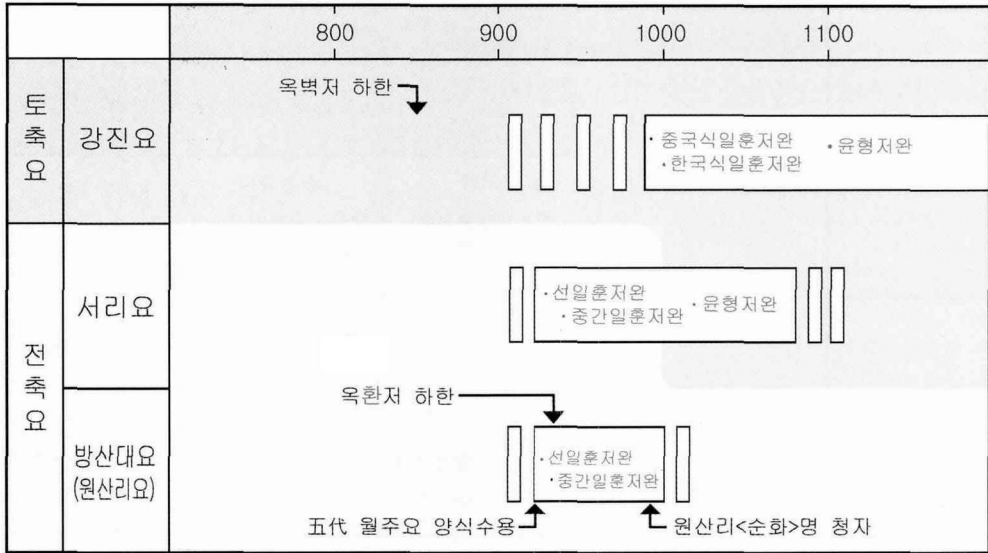


표식적 유물이며 지금까지 초창기의 청자로 알려진 선일훈저완이 전축요 계열인 방산대요와 원산리요에 공존하며 요의 구조와 도구 등 제반 환경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이 세 요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계통의 청자 기술을 기반으로 開窯한 한반도 최초의 청자요이며, 같은 시기에 閉窯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표 3〉 참조).

이러한 編年案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초기청자가 발생하여 발전하는 과정은, 五代前期인 10세기 전기 선일훈저완을 표식적 유물로 하는 전축요 계열의 용인서리요(제1-2기층)와 방산대요, 원산리요 등에서 처음 중국 전축요와 선일훈저완 기술을 보유한 집단의 직접적 영향으로 지극히 중국적인 청자를 만들고, 뒤이은 11세기 전후에 강진요를 포함한 토축요 계열의 요들과 용인서리의 토축요(제3-4기층) 등지에서 일훈저완을 표식적 유물로 하는 한국적 청자로 변천하는 것이며, 덧붙여 선일훈저 형식은 만당-오대 시기에 옥벽저 형식이 운형저로 변천되는 과정에서 굽의 직경과 接地面 폭이 좁아진 소위 玉環底碗이라고 부르는 특수한 굽의 형태를 모델로 제작된 것이라는 견해를 내었다. 나아가 8세기 후기부터 9세기 전기까지 성행했던 중국 옥벽저완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에서 자체 제작했다는 일훈저완도 옥벽저의 변형인 옥환저를 모델로 한 10세기 전기-11세기 동안 이루어진 한국적인 자체 변형과 발전의 결과이며 晚唐代 玉璧底碗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글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해내기 위해 제시한 기

표 3 초기청자 변천표(2000년-2005년)



준 자료의 분석에서 몇 가지 수궁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아마 이러한 문제 들은 유물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서 논리 전개의 결정적 근거가 되는 자료를 직접 비교 관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에 대한 불안감은 2005년 朝鮮官窯博物館의 《靑磁의 色 形》 전시에 최근 중국에서 조사된 晚唐-五代 越州窯 靑磁의 핵심적 자료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sup>14</sup> 여기에는 절대편년이 있는 유적 출토 자료로 大中二年(848년)의 寧波市 和義路 出土 월주청자 28점, 天奘元年(901년)의 臨安市 水邱氏墓 출토 월주청자 4점과 북방백자 2점, 天福四年(939년)에 臨安市 康陵 출토 월주청자 12점, 會昌三年(843년)銘匣鉢을 동반한 월주 荷花芯窯址 출토 청자 22점, 앞서 화의로유적 청자와 유사한 월주 白洋湖窯址 출토 청자 11점과 1998-99년 발굴조사된 오대 寺龍口窯址 출토품 12점 등과 기타 요지 출토의 만당-오대 청자 60여 점을 포함하여 일본 이데미츠미술관소장의 만당-오대 월주청자편 13점과 장사요청자편 10점도 함께 전시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옥벽저완 11점, 옥환저완 1점 등 우리 청자의 선일흔저완의 굽과 유사한 예도 십수 점 포함되어 있어서 玉璧底와 玉環底, 輪形底,

<sup>14</sup> 『靑磁의 色 形-韓國·中國 靑磁 比較展-』(조선관요박물관, 2005).

先日暈底, 日暈底 간에 상호 비교 분석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III. 자료의 분석과 문제 제기

2000년대 이후 연구 초점은 같은 전축요 계열인 용인서리요(제1-2기층)와 방산대요의 공존 여부 문제와 그에 따라 제기된 선일훈저완과 일훈저완 관련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博築窯와 土築窯의 窯構 및 구조, 改築과 관련한 문제와 碗과 鉢을 제외한 花瓣形樑匙나 蓋托 등 기종에 따른 양식 변천 문제와 같은 제반 문제들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가장 초점이 되는 문제 세 가지의 해석을 통해 초기청자 편년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 1. 先日暈底碗, 중국 玉環底碗

앞서 본 것과 같이, 10세기 발생설과 9세기 발생설에서 견해 차이가 벌어지게 된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先日暈底碗이 놓여 있다. 10세기 발생설은 이 碗이 용인서리요 전축요(제1기층) 기간에 처음 만든 한반도 초창기 청자로서 10세기 開窯로 추정되는 원산리요 출토 碗과 대체로 유사하며 방산대요의 碗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중서부지방 博築窯 계통의 窯들은 10세기 전기 중국 五代 월주요의 청자 기술을 직접 받아 최초로 開窯하여 선일훈저완을 표식적 유물로 하는 전축요식 청자를 생산하고, 원산리요의 〈淳化四年銘青磁〉가 가리키는 10세기 말기-11세기 초기에 쇠퇴하다가 土築窯式 청자인 日暈底碗으로 교체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의 초점이 되는 선일훈저완을 분석하는 데 있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실물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황해도 원산리요는 제외하고 용인서리요(제1-2기층)와 방산대요에서 출토한 동일 유형의 碗과 鉢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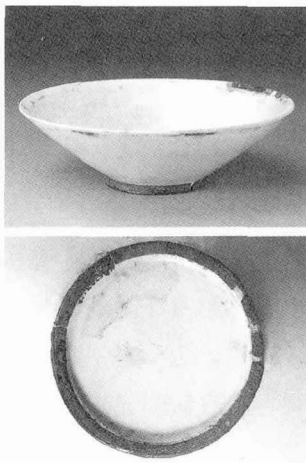
2003년 간행된 『龍仁西里高麗白磁窯—發掘調査報告書 II』에는 先日暈底(先해무리굽) 형식과 관련하여,

선해무리굽은 굽의 형태상으로 해무리굽 이후에 나타나는 운형굽과 일견하여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선해무리굽이 달린 완이나 발류의 기형 제작기법 태토 유색 등이 해무리굽과 다를 뿐만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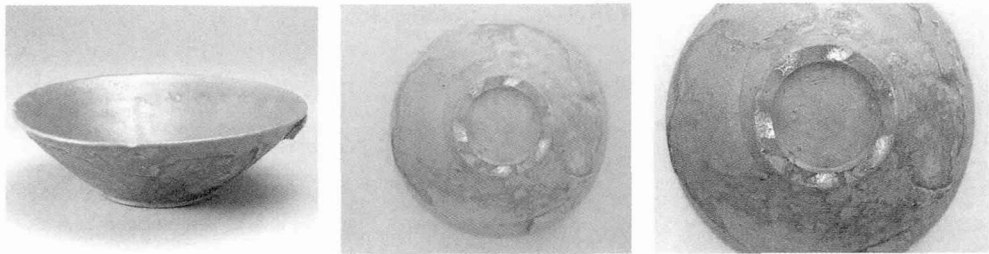
나라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식의 윤행굽의 특징들과도 다르며, 특히 해무리굽보다 앞 시기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층위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각 형식들 간의 선후관계에 대한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선해무리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輪形底와 크게 다르지 않은 소위 선일훈저는 중국과 일본의 유적에서 일훈저와 동시에 출토되며 동시에 두 가지 굽 깎는 방식이 공존하였음을 밝혔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조선관요박물관의 《靑磁의 色 形 展》(2005년)에 출품된 晚唐代〈大中二年(848년) 銘碗〉을 동반하는 和義路遺跡 출토 청자 28점 가운데 옥벽저완을 제외한 완과 발 접시 등 모든 器種의 굽이 접지면의 폭이 0.5-0.8cm 정도로 輪形底 0.3-0.5cm에 비해 약간 넓은 편이 대부분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전시에 출품된 〈會昌三年(843년) 銘匣鉢〉을 동반하는 荷花芯窯址 출토 청자 22점의 경우에도 2점의 옥벽저완을 제외한 완, 접시, 잔, 호, 병 등의 굽 접지면 폭은 0.5-0.8cm 정도로 윤행저에 비해 약간 넓은 편이어서, 晚唐代(9세기중기) 월주 청자의 굽은 접지면 폭이 눈에 띄게 넓은 2.0cm 내외의 옥벽저형식과, 윤행저보다 약간 넓어 0.5-0.8cm 정도 되는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주류는 옥벽저보다 후자인—소위 선일훈저에 가까운—약간 폭이 넓은 윤행저 형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지면의 폭은 唐末五代 10세기 유적 출토 청자에서 변화를 맞게 된다. 天夏元年(901년)의 水邱氏墓 출토 청자 4점과 백자 2점 가운데 기존 전래 기종으로 측면선이 直斜形인 〈白磁新官銘碗〉은 굽직경/접지면 폭이 6.7/0.5cm로, 접지면 폭이 만당대의 碗과 같이 약간 넓은 편이지만<sup>1</sup> 새로운 器種인 〈靑磁花形鉢〉의 경우 8.3/0.3cm으로 좁아졌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약 40년 후 五代 天福四年(939년)의 康陵 출토 청자 12점 가운데는 신형 기종과 전래의 구형 기종이 공존하는데, 발과 접시, 소호 등 신형 기종은 7.8/0.3cm, 8.7/0.3cm, 6.9/0.4cm로 접지면 폭이 윤행저와 같은 0.3cm로 좁아지는 경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만, 전래되어 온 구형 기종인 옥벽저완은 전체 규격이 작아지고 口徑이 12.4cm 정도, 굽저경/접지면폭은 5.5/1.1cm로 대폭 줄어들었다(이 작은 완은 최근 玉環底라는 별도 명칭을 붙



도 1 절강 임안 水邱氏墓(901) 출토 定窯백자완, 5.2/17.2/6.7cm, 임안시문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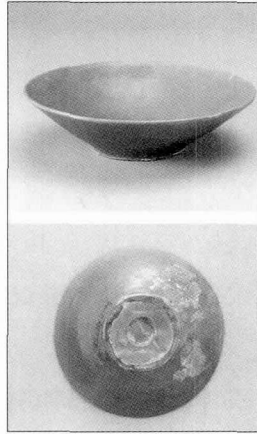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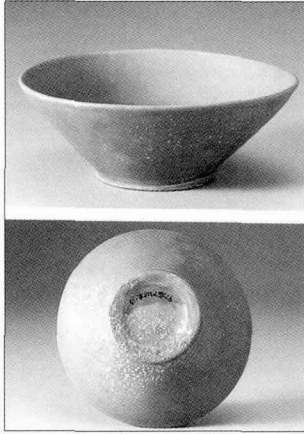
도 2 절강 자계 寺龍口요지 五代층 출토 청자완, 4.9/16.3/6.7cm,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

여 玉璧底와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 뒤에 다시 논의하겠다).

그리고 五代 寺龍口窯址 출토품도 대부분 접지면 폭이 0.3cm 내외로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며, 굽 안바닥에 고리 받침인 墊圈을 받친 上品 直斜形碗의 경우 접지면 폭이 0.2cm 이하이지만, 굽 주변에 유약을 바르지 않은 下品 直斜形碗은 6.7/0.7cm로 나타나고 있어서 하품은 옛 방식 그대로 폭이 넓게 제작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현상들은 오대 10세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전래되어 온 구형 기종은 관행적으로 옛 깎음 방식을 써서 0.5-0.8cm 정도로 깎지만 신형 기종은 0.3cm 정도의 새로운 10세기 방식으로 깎고 있으며, 잘 알려져 있는 〈太平戊寅(978년) 銘青磁〉의 접지면 폭도 거의 대부분 0.3cm 이하여서 新舊 器種과 품질에 따른 별도의 구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晚唐-五代에 玉璧底를 제외한 대부분의 청자 굽 모양은 접지면 폭이 0.5-0.8cm 정도로 輪形底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에서 五代 10세기를 지나면서 0.3cm로 좁아지고 다시 0.2cm로 좁아져 완전한 輪形底로 바뀌어 간다고 말할 수 있다.

선일훈저완을 초창기의 표식적 유물로 하는 용인서리(제1-2기층)와 방산대요 출토 碗과 鉢을 관찰하면 중국 만당 오대의 변화와 일정한 관계에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굽의 접지면 폭은 서리요 쪽이 0.6-0.8cm로 넓은 편이며, 방산대요 쪽이 0.4-0.6cm 정도로 조금 좁게 나타난다. 주목되는 것은 碗보다 鉢의 경우 서리요 쪽의 굽저경/접지면 폭이 7.0-8.0/0.6-0.8cm으로 접지면 폭이 넓은 데 비해 방산대요는 6.0-7.0/0.4-0.5cm로서 접지면이 좁은 편이며, 서리요 측이 굽이 넓고 편평하게 직선적으로 깎아 예리한 데 비해 방산대요는 약간 좁고 오뎅하며 둥글려 깎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碗의 경우에도 서리요는 6.0-7.0/0.6cm이며 방산대요는 5.0-6.0/0.6cm이어서 鉢에서 본 것과 같이 전자가 넓고 편평한 반면 후자는 좁고 오뎅한 편이고, 접시나 다른 기종의 경우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서리요(제1기층) 출토의 선일훈저완은 五代보다 晚唐의 경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도 3 절강 입안 康陵(939)출토  
월주청자 소완, 4.6/12.4/5.5cm,  
임안시박물관(좌)

도 4 월주Y37호 荷花芯窯址  
會昌三年(843)명 갑발동반출토 완,  
3.8/14.2/6.0cm,  
절강문물고고연구소(우)

이러한 흐름은 만당에서 오대로 다시 북송 초로 이어지는 현상인 넓고 편평한 굽에서 좁고 오뚝한 굽으로 변천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으로서, 한반도 청자의 경우에도 晚唐 경향의 先日暈底碗에서 五代 경향의 방산대요 碗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다름 아니며 결과적으로 제작 시기의 차이를 암시하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한편, 중국에서 옥벽저완과 윤형저완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 玉環底碗의 下限으로 알려져 있는 康陵(939년) 출토의 〈靑磁玉環底碗〉은 출토품 가운데 유일한 기종으로 옥벽저 계통의 완이 소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이다<sup>도3</sup>. 이 완은 釉胎의 상태는 다른 출토품과 같은 최상품이지만 器種과 굽 깎은 방법이나 耐火土 받침법은 전래의 옥벽저완에서 쓰던 옛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규격은 높이:구경:저경/접지면 폭이 4.6:12.4:5.5/1.1cm로서, 9세기 중기의 보편적 규격인 白洋湖窯址 출토 옥벽저완의 4.0:15.6:6.4/2.5cm에 비해 전체 규모가 현저하게 작아지지만 좁고 오뚝한 방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sup>도4</sup>. 이러한 옥벽저에서 옥환저로 규격의 변화는 한반도 일훈저완의 규격 변화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 있다. 서리요(제2기층)의 전형적인(初期)한국식일훈저완의 규격은 6.0:15.0:6.0/2.0cm로서(中期)한국식일훈저완(서리요제3기층)의 5.0:14.0:5.0/1.5cm보다 넓고 크며 절도 있고 단단한 맛을 주지만, 서리요(제1기층)의 선일훈저완같이 예리하고 직선적이며 편평하고 넓고 큰 맛은 일부 줄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9세기 중기 白洋湖窯址 출토 옥벽저완에서 939년의 康陵 출토 옥환저완으로의 변화와 일정한 관련 속에서 비교될 수 있어서, 중국 만당대의 폭넓은 윤형저와 공존하는 옥벽저와 옥환저, 선일훈저와 한국식일훈저의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다.

위에서 용인서리요(제1-2기층)의 선일훈저완과 방산대요의 碗과 관련 정도를 살펴보았다.鉢이나 碗과 같이 보편적 일상기종은 일백년 이상 삼백년 정도 큰 형태의 변화 없이 지속되어 변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조선 백자가운데 최고 최대의 기종인 발(白磁素文大鉢)의 경우 15세기에 시작되어 늦어도 17세기 후기까지 이백년 이상 거의 같은 형태로 지속되면서 아주 은밀하게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모습을 오십년 정도 짧은 기간 안에 감지하기 어렵다. 이와 마찬가지로 용인서리요(제1-2기층)와 방산대요의 碗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대하는 일은 더욱 어렵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작 기간의 선후관계를 암시하는 기본적 비례의 차이는 분명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굽 짝은 모습에서도 서리요의 예리한 직선적 짝음에서 방산대요의 다소 완화된 둥글린 짝음새로의 변화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2. 日暈底碗, 중국 玉璧底碗

일훈저완은 우리나라 초기청자 기종들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 생산된 대표적 기종이다. 또 이 완이 만당 9세기 전기까지 1세기 가량 유행했던 중국 옥벽저완을 모델로 만들었다는 전제 아래 처음 제작한 시기를 추적하는 절대 요소가 되어, 한국청자 발생 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특히 이 일훈저완은 강진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해안지방에 산발적으로 분포하는 소규모 土築窯에서 제작되고, 청자 기술의 계통을 달리하는 중서부지방의 대규모 塼築窯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서, 토축요 초기청자의 表式的 器種이라고 말할 만하다.<sup>15</sup>

그런데 최근 방산대요의 유물 자료가 검토되면서 일훈저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었다. 용인서리요의 전축요(제1-2기층) 운영시기가 10세기에 운영된 방산대요와 원산리요와 같다는 판단을 근거로 서리토축요(제3기층)의 일훈저완을 10세기 말기-11세기로 편년하였고, 따라서 한반도에서 제작한 일훈저완은 9세기 중기에 소멸한 중국 옥벽저완을 최소 1세기 이상 지난 후 한반도에서 리바이벌한 기종이라는 것이 요지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

<sup>15</sup> 塼築窯와 土築窯에 관해서는, 崔健, 「韓國初期靑磁의 分類と變遷」과 同著,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제12호(1998)을 참조. 전축요는 일정한 규격의 耐火塼을 써서 쌓았기 때문에 벽돌로 쌓은 가마라는 뜻에서 '塼築窯'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물론 토축요의 경우에도 내화토만을 쓰지 않고 일부 石材와 망송이(가마 쌓기 위하여 마치 큰 참외와 같은 형태로 빚은 내화토 덩어리)를 함께 쓰고 있어서 순수한 토축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축요의 벽돌'과 비교되는 '흙으로 쌓았다'라는 점에서 '土築窯'라고 표현하였다.

같은 10세기 전기에 玉環底碗을 모델로 만든 한국화된 기종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견해들은 나름대로 자료 분석을 통한 논리적 토대에서 도출된 결과로 생각되지만, 논리 전개 과정에서 눈여겨보지 못한 몇몇 자료에 대한 무리한 해석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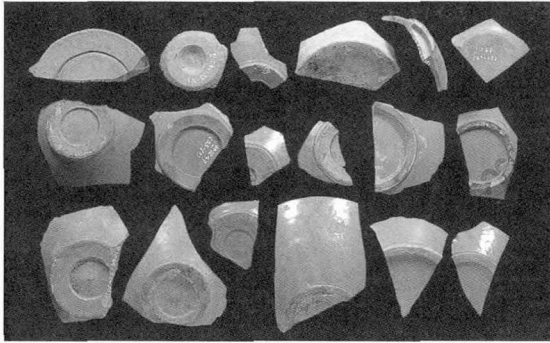
앞서 先日暈底碗 부분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가 제기된 원인은 용인서리요(제1-2기 층)와 방산대요와 원산리요가 모두 전축요로서 일체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리요 출토의 선일훈저완이 나머지 두 요에서 출토한 동류의 완과 일치한다고 선뜻 판단한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견해를 따르면 일훈저완은 고려에서 뒤늦게 茶碗이 유행하면서 백년 전 중국에서 유행했던 옛 다완으로 옥벽저완을 리바이벌한 것이 되며, 아니면 옥벽저완이 윤형저완으로 변하는 과정에 나타난 10세기 전기의 옥환저를 방조하여 한국화시킨 것이 된다. 그러한 판단에 힘을 실어준 것은 옥벽저완과 일훈저완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고 전개 과정도 일치하지 않아서 양자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부 주장도 작용했던 것 같다.<sup>16</sup>

한반도의 일훈저완은 초창기에는 옥벽저완에 가까운 소위 內底面이 曲面인 중국식 일훈저완으로 시작해서 內底에 圓角을 깎고 규모가 조금 작아진 한국식 일훈저완으로 전개되고 있다.<sup>17</sup> 이때 중국식 일훈저완은 굽의 저경/접지면 폭이 6.0/1.2cm로 접지면 폭이 일반적으로 보는 옥벽저의 규격 6.5/2.0-2.5cm에 비해 눈에 띄게 좁으며, 한국식 일훈저완의 5.0/1.5-2.0cm과 비교해도 오히려 좁은 상태를 보인다. 중국의 경우 접지면 폭이 3.0cm에서 2.5cm로, 다시 2.0cm로 줄고 옥환저에 가면 1.0cm 정도로 좁아져서 폭이 넓은 쪽에서 좁은 쪽으로 변화한다. 한반도의 경우는 이와 달리 중국식 일훈저의 1.2cm에서 한국식 일훈저의 1.5-2.0cm으로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기 때문에 중국의 전개 양상과 다르다는 인상을 받기 쉽다. 아마 이러한 점 때문에 옥벽저완과 일훈저완이 과연 동시대에 직접 영향 관계에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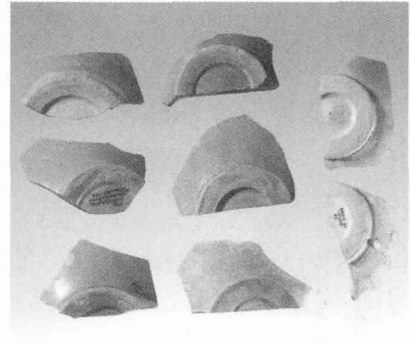
그러나 접지면 폭과 관련한 문제는 그러한 일부의 주장과 관련이 없다. 현재까지 옥벽저가 접지면 폭이 3.0cm에서 1.5cm, 그리고 1.0cm로 좁아져 玉環底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중국 측의 상세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서 분명한 판단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옥벽저완이 출토되는 한반도의 유적과 일본에서 옥벽저를 방조한 灰釉陶를 분석하면 문제의 실마리를 끌어낼 수 있다. 먼저 국내 출토품의 경우 유물의 시대 폭이 넓은 新

<sup>16</sup> 李喜寬, 「韓國 初期青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 『美術史學研究』 237(2003. 3), pp.5-48.

<sup>17</sup> 崔健, 「韓國初期青磁의 分類と變遷」, pp.41-64.



도 5 경주 왕경유적출토 중국청자 옥벽저 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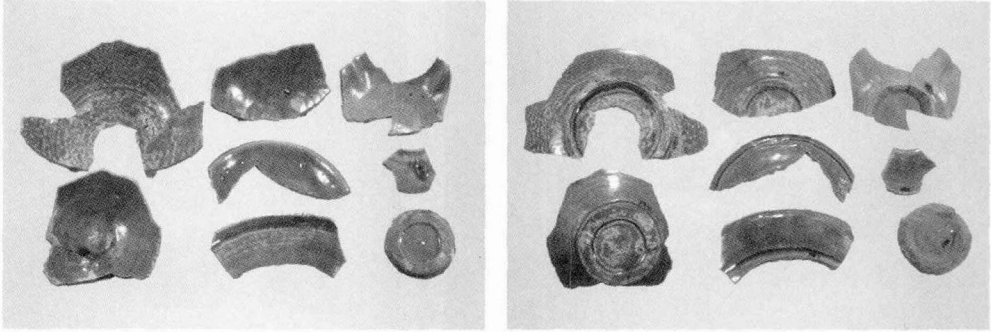
도 6 완도 청해진(828-846)출토  
월주청자 옥벽저완류, 문화재관리국

羅王京이나 寺刹에서 출토한 중국 만당-오대 도자 가운데에는 굽저경/접지면 폭이 6.0-7.0/2.0-3.0cm인 소위 大徑/廣幅式 玉璧底碗과 7.0-8.0/1.2-1.5cm인 大徑/狹幅式 옥벽저완이 공존하지만 도5, 828-841년간 지속된 張保皐의 將島 遺跡에는 6.0-7.0/1.2cm 정도의 大徑/狹幅式 옥벽저완만 출토되고 있어서 출토지의 환경에 따라 옥벽저완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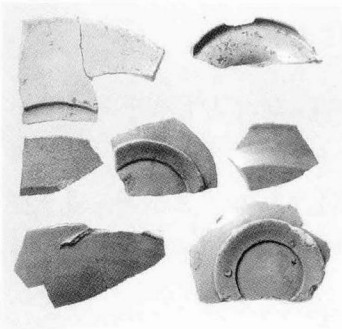
9세기 전기의 말에 속하는, 앞서 지적한 和義路遺跡 출토 옥벽저완과 荷花蕊窯址 출토, 白洋湖窯址 출토 옥벽저완은 6.0-6.5/2.0-2.5cm로서 모두 대경/광폭식이며, 굽을 깎은 속도가 빠르고 면을 단순화시켜 간단히 깎았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반면, 장보고 장도의 대경/협폭식 옥벽저완은 꼼꼼하고 주의 깊게 예각을 깎고 다듬어 완성도가 높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두 현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남 강진요와 그 주변에서 처음 만든 초창기 청자 가운데 하나인 중국식 일훈저완에 대경/광폭식은 드물고 장도 출토 옥벽저완과 가까운 대경/협폭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서남해안지방에 분포하는 토축요의 중심인 강진요에서 만든 중국식 일훈저완이 장도 출토와 같은 대경/협폭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장보고시대에 수입한 대경/협폭식 옥벽저완이 직접 강진요 開窯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된다 도7.

이렇게 된 데는 나름대로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장보고 장도 출토품이 월주요에서 수출품으로 별도 지정된 것이어서 품질과 조형이 대경/협폭식으로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장보고의 시대에 대경/협폭식이 주류였다가 9세기 전기 말경에 대경/광폭식으로 변화했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지만 현재로는 추측 이상의 접근은 어렵다. 다



도 7 중국형 해무리굽완(내저곡면-내저원각), 5.0/15.7/6.7cm, 개인소장



도 8 일본 녹유蛇目高臺완,  
나고야시박물관

만 월주청자의 대경/협폭식 옥벽저완 계통의 기술이 강진요 쪽으로 이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일본의 경우에도 월주청자 옥벽저완을 모방한 소위 蛇目高臺의 碗이 9세기경의 綠釉陶와 灰釉陶로 제작되고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굽 폭이 1.2cm 내외로 대경/협폭식이다<sup>18</sup>. 9세기경 중국 월주요 청자의 대경/협폭식 옥벽저완이 일본에 전해지고 그것을 모델로 하여 자체 綠釉·灰釉陶의 기술로 大徑/狹幅式 蛇目高臺碗을 만드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高火度 灰釉陶 기술이 앞선 한반도의 강진요에서 대경/협폭의 중국식 일훈저완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을까 한다.

### 3. 窯道具, 匣鉢과 墊圈

한반도에서 처음 청자를 만든 窯構는 土築窯와 博築窯 系列로 구분되고 있다. 이 두 계열의 窯는 築窯 材料和 구조가 기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사용하는 窯道具도 각각 다르다. 匣鉢에 쓰는 갑발의 종류와 사용방법이 각각 다르고 常燔의 경우에도 陶枕의

<sup>18</sup> 『日本の三彩と綠釉』(日本 五島美術館, 1998), pp.136-137, 圖D-3, D-7 참조.

형태와 기능이 다르며, 특히 그릇의 굽을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고난도의 기술인 墊圈의 경우 토축요 계열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지만 전축요 계열인 방산대요와 원산리요에는 일정량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인서리요에서도 나타나지 않아 같은 전축요 계열에서도 구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두 계열의窯에서 각각 개성이 다른 요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기술 계통을 달리하는 제작 집단과 제작 시기가 달랐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초기청자 제작에 사용된 갑발은 筒形匣鉢과 床形臺 세트와 鉢形匣鉢과 菌形臺 세트 두 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토축요에는 통형갑발 세트 한 종류만 사용하고 전축요에서는 통형갑발 세트와 발형갑발 세트를 함께 사용하여, 요의 계열에 따라 사용하는 갑발의 종류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sup>19</sup> 한반도 통형갑발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것은 이와 가장 유사한 월주 寺龍口窯址 만당대(9세기 중기-907년)의 갑발로<sup>20</sup> 이러한 단순 원통형 갑발의 형태는 오대와 북송 초기에 형태와 기능이 변하여 소위 M자형 갑발로 변하는데, 이때의 형태와 규격은 한반도 초기청자의 통형갑발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발형갑발과 균형대 세트도 만당대 출토품과 형태와 규격이 가장 유사하며<sup>21</sup> 오대 이후에는 발형갑발의 비례도 다르고 균형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두 종류의 갑발 세트가 늦어도 오대 10세기 이전에 한반도에 전해졌음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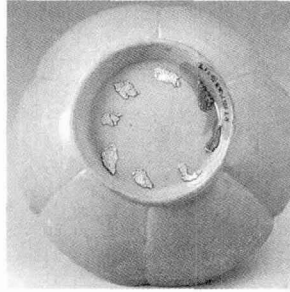
물론 현재 어떻게 토축요 계열에서 통형갑발 세트만 사용하고 전축요 계열에서 두 세트 모두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통형갑발 세트가 주류로서 一匣一器의 上品靑磁 전용이라거나 발형갑발 세트가 좀더 보편화된 一匣二器로 추측되지만 뒷받침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墊圈은 기존에 내화토 받침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받침으로 굽의 접지면 대신 안바닥에 태토로 만든 반지형 도구를 받치고 내화토를 붙인 후 그릇을 놓아 굽기 때문에 접지면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되는 고난도의 기술로서 上品靑磁 제작에 효과적인 기술이다. 월주요 청자에서 처음 시작을 가리키는 자료는 분명하지 않지만 출토품 가운데 상품 청자의 비중이 높은 浙江省 臨安市 水邱氏墓(天夏元年, 901년) 출토품에는 굽의 접지면에 내화토받침 흔적만 있고 점권의 흔적이 없는 반면, 역시 상품 청자를 출토한 절강성 임안시 馬氏王后 康

<sup>19</sup> 崔健, 『韓國初期靑磁の分類と變遷』, pp.41-64.

<sup>20</sup>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外, 『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 2002), p.301, 圖163-1.

<sup>21</sup>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 外, 위의 책, p.293, 圖158-1.



도 9 절강 임안 康陵(939)출토  
월주청자 六花形 발,  
7.0/14.1/7.6, 임안시문물관

陵(天福四年, 939년)에는 굽 접지면에 내화토를 받치는 방법과 굽 안바닥에 반지형 도구를 고여 받치는 점권 방법이 확인되고 있다. 요컨대, 점권은 六花形鉢<sup>9</sup>과 절요접시, 잔, 호 등의 굽 안바닥에 받친 흔적이 남아 있고, 타호, 반, 유개소호, 향합, 옥환저완 등에는 기존 방법대로 접지면에 내화토로 받쳐서, 939년경에 왕실의 부장품으로 내화토 받침 방식과 점권 받침 방식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점권으로 받치는 방식은 吳越國(907-978년)王 錢俶이 통일 북송 황제에게 영토를 바치면서 공물로 보낸 대량의 월주요청자인 978년 제작의 〈太平戊寅銘青磁〉를 포함하는 상품 청자의 기본 조건으로 북송전기까지 주류 방법으로 자리잡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월주요에서 최신 기술인 점권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901-931년 사이이며, 정확히는 931년경 당시 왕실 수준의 최고급청자에 50% 정도 적용하기 시작하여 978년경 성행하다가 北宋早期로 구분하는 960-1022년 기간에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반도에 내화토받침 방법을 개선한 고난도의 점권 기술이 언제 들어왔는가 하는 문제는 전축요 계통의 용인서리요와 방산대요의 상대편년을 설정하는 근거는 물론 토축요 계통의 강진요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전축요와의 선후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릉 출토품 같은 왕실 수요의 최상품 청자에서 점권 적용율이 50% 정도라는 사실은 한반도로의 기술이전은 강릉의 931년 이전보다 그 이후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증언하는 것이다. 월주요에서도 왕실용 최상품에 적용되던 점권과 같은 고급 기술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후에야 주변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보편적 이해에서 볼 때, 한반도까지 기술이 전해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생각보다 더 늦을 수 있다. 강릉 출토품에는 다양한 器種에 점권을 받쳤던 흔적이 남아 있지만 그러한 기종이 한반도에서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아직 확인할 수 없다. 현재 한반도에서 확인 가능한 점권 기술을 적용한 자료는 유일하게 방산대요의 折腰楩匙<sup>10</sup>뿐인

데, 이러한 현상은 월주청자에서 기종에 따른 점권 적용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 아닌가 하며 그에 따른 시기 차이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방산대요의 경우 절요접시와 점권이 퇴적층 최하층부터 일정하게 출토되고 있어서 이 기술의 한반도 전파 시점과 開窯時期가 일치할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해졌다.

방산대요와 함께 중요한 전축요 가운데 하나인 서리요(제1-2기층)에서 점권의 사용 여부는 개요시기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을 가리켜주고 있다. 기존 서리요 발굴조사자는 전축요의 퇴적층인 제1기층(선일훈저완)과 제2기층(선일훈저와 중국식 일훈저 공존)이 있고 가마의 구조를 토축요 방식으로 전환한 후 제3기층(한국식 일훈저)과 제4기층(운형저)이 형성되었다는 고고학적 층위조사와 출토유물의 분석 결과를 1, 2차보고서를 통해 상세히 밝혔다. 물론 점권에 대해서는 서리요 1차보고서 당시에 그리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방산대요 발굴 결과 점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후 서리요 출토유물을 심층 분석한 2차보고서에도 점권과 관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많은 요도구들 가운데 점권과 규격과 형태가 유사한 유물이 단 1점 포함되어 있고 백자, 청자의 굽 내저면에 점권을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축요 방식이었던 서리요(제1-2기층) 출토품 가운데, 특히 두 종류의 갑발과 받침 세트가 공존하는 층위에서 점권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다. 물론 토축요 방식인 제3-4기층에서 점권이 발견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서리요에서 전축요 방식으로 운영되던 제1-2기층 기간이 월주요에서 점권이 사용되기 전인 康陵의 939년 이전이거나, 아니면 吳越國 王室에 공납하는 특상품 청자에 적용하는 고난도의 점권 기술이 아직 서리요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후자는 바로 주변에 있는 방산대요에서 점권이 일정 부분 사용된 정황에서 볼 때 서리요에 전해지지 않았다는 가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서리요의 경우 점권이 존재하지 않고 방산대요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부터 일정 부분 존재했다는 사실은, 곧 서리전축요(제1-2기층)의 개요시기와 운영시기는 점권 사용 이전(康陵의 931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되며, 방산대요는 중국 월주요에서 점권 사용이 어느 정도 보편화된 이후(康陵 시기 또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점권기술 보유집단'에 의해 開窯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증언하는 대목이다.

점권은 전축요 방식의 방산대요와 원산리요 출토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산리요의 경우 발굴보고서의 내용이 미미하여 구체적 검토가 어렵고 다른 지역의 전축요의 경우에도 지표조사 자료만 확보되어 점권과 관련된 분석은 진전시키기 어렵다. 그러나

방산대요와 원산리요의 친연성, 예컨대 전축요 축조 이전에 동일 구역 안에 統一新羅式 硬質陶器窯가 운영되고 있었고 이 陶器窯를 폐기한 직후 전축요를 축조한 점을 기억한다면, 같은 전축요 계통이지만 용인서리요와 이들 요와는 처음 축조단계부터 환경이 크게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선일훈저완의 분석에서도 서리요가 방산대요보다 선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기타 기종도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서 서리전축요와 방산대요가 공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물론 서남해안지방의 강진요를 포함한 토축요에서도 방산대요와 같은 점권은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匣鉢과 陶枕의 경우에도 양자 간에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지만 점권의 경우에도 역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점권을 가운데 놓고 보면, 역시 초점은 서리전축요에서의 점권 사용 여부이다. 방산대요와 원산리요에 점권이 존재하고, 특히 방산대요의 경우 開窯 처음부터 점권이 사용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해 용인서리요는 점권 자체의 존재 가능성부터 아주 낮아져 있다. 물론 발굴조사 자료 가운데 墊圈과 유사한 형태의 고리형 받침이 한 점 있지만, 조사보고자는 많은 자료 가운데 단 한 점뿐이며 이것을 받쳐 구운 그릇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자료가 외관은 유사하지만 五代 越州窯의 墊圈과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고 있다.<sup>22</sup>

점권의 유무 문제 외에 용인서리요와 방산대요와의 관련 문제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논의되어 왔다. 요도구 외에 중국 오대 월주요와 관련 기종과 독자적인 기종 등에 대한 검토도 차분히 진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전축요 계열의 요들이 일정기간에 개요하고 공존하다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기에 폐요했을 것이라는 전제를 과감하게 벗을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대로 실제 용인서리요와 방산대요는 보기보다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 즉 용인서리요(제1-2기층)가 과연 방산대요와 같은 기간에 開窯하여 선일훈저완을 포함한 청자(백자)를 생산하다가, 이어 방산대요의 경우에는

<sup>22</sup> 이 내용은 용인서리요를 발굴 조사한 호암미술관 김제열 부관장의 견해이며, 2차보고서를 작성한 전승창 학예실장의 증언으로 신뢰도가 높은 것이다.

전축요의 제반 문제로 적응력이 떨어져 폐요하고 서리요는 대세로 등장한 토축요 체제로 발 빠르게 전환하여 당시 한반도에서 유행하고 있던 內低圓角의 日暈底碗을 만들면서 1-2세기 지난 고려 중기까지 지속하다가 閉窯했을 것이라는 줄거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의 대부분은 선일훈저완과 일훈저완 문제, 서리요에서 墊圈의 사용 여부에 대한 해명이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곧 최근 진행되어 온 여러 새로운 견해에 대한 필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에 따른 필자의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리요 제1기층 출토의 先日暈底碗은 唐末-五代에 越州青磁의 玉環底碗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 완의 굽 형태는 만당 9세기 중기 월주청자에서 가장 보편적인 굽에 가깝다. 五代에 가면 접지면이 더 좁고 전체 비례가 더 오뎅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방산대요의 유행저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굽 형식에서도 서리요의 선일훈저완 형식에서 방산대요의 유행저에 가까운 형식으로 변하는 것이 순리적 발전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日暈底碗이 중국 玉璧底와 관련 없다는 견해는 자료 분석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강진요의 초창기 內低曲面의 中國式 日暈底碗이 張保皋 島 유적(828-841년) 출토 월주청자 大溼/狹幅式 玉璧底碗에 가장 가까워서 연관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생겼다. 본문에서 미처 설명하지 않았지만, 토축요의 초창기 內低曲面의 중국식 일훈저완의 시대와 전축요인 용인서리요의 선일훈저완 시대는 거의 동시대로서 공존관계에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본격적으로 규명하겠다.

셋째, 墊圈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방산대요에서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은 康陵(939년)시대 이전일 가능성은 아주 낮으며, 용인서리전축요(제1-2기층)나 토축요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점권 기술의 전파 이전에 서리요가 개요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특히 서리요의 개요 이후(제1-2기층)에도 방산대요와 같은 오대 월주요계통의 유물이 없었다는 점이 그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서리요(제1-2기층) 이후 방산대요의 開窯라는 선후관계가 가능해지면, 서리요(제3기층)과 방산대요에서 같은 계통의 화판형접시, 뚜껑접시 및 方形祭器가 동시에 출토되는 원인도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초기청자 변천과정(〈표 4〉 참조)은 다음과 같다. 먼저, 晚唐 越州青磁의 영향으로 博築窯 계열의 서리요(제1-2기층)와 土築窯 계열의 강진요가 초창기를 열면서 일정기간 공존하다가, 강진요 계통이 중심으로 등장하는 한편 五代前期 월주청자의 영향으로 방산대요 등 전축요가 중서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거 활약하게 된다. 뒤이어 곧 토축요의 한국식 일훈저완이 전국적 규모로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서리요는 窯構 자체를 토축요로 개조

표 4 초기청자 변천표(2006년 최건)

		800	900	1000	1100
후 촉 요	강진요	옥벽저 하한 →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중국식일훈저완 · 윤형저완 · 한국식일훈저완</span> ← 송계리 요지(1022년 하한)			
	서리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선일훈저완 · 윤형저완 · 한국식일훈저완 A식</span>			
전 촉 요	방산대요	<span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선일훈저완 · 일훈저완 B식</span> 五代 월주요 양식수용 ↑      ↑ 원산리<순화>명 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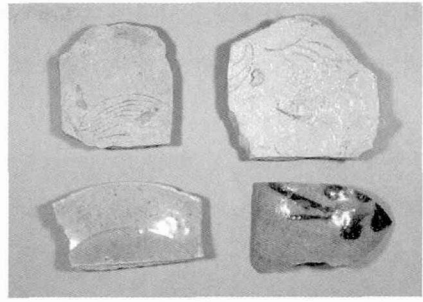


도 10 사자빈신사탑지 청자요지전경(2006년3월 촬영)

해 한국식 일훈저완을 만들면서 성행을 누리는 반면, 방산대요 등에서는 생산품은 일훈저완에 가깝게 만들지만 窯構를 개조하지 못하고 결국 경쟁력이 떨어져 쇠퇴하게 된 것 같다. 이어 강진요가 전국의 대세를 주도하면서 오대 말-북송 초의 새로운 양식을 받아 輪形底碗에 가는 陰刻으로 鸚鵡文, 菊唐草文, 쌍나비文, 거북文을 그리면서 소위 강진청자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때 오대 말-북송 초 월주청자의 영향과 관련하여 충북 제천 松溪里 獅子瀨汎寺址 청자요와 그 출토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0</sup>. 이 탑(太平二年, 1022년)은 청자요지를 폐기한

후 그 위에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sup>23</sup> 그렇다면 여기서 수집된 (末期)變形日暈底碗, 輪形底碗, 菊唐草文, 鸚鵡文, 鐵畫文 등의 조형요소들의 下限은 탑의 조성년대인 太平二年(1022년)이 되며 이러한 시기는 오대 말-북송 초기 월주청자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는 시기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서 신뢰도 높은 자료로 판단된다<sup>도11</sup>.



도 11 사자빈신사탑지출토 청자류, 조선관요박물관

이제까지 최근 2000년대 들어 청자 발생 시기와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견해에 대해, 특히 편년에 기준이 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필자의 관찰 결과를 서술하였다. 유물의 분석 과정에서 완과 발같이 구조가 단순한 경우에는 보다 정밀한 관찰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건의 충족을 위해 다량의 보편적으로 평가되는 실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청자의 편년문제에 대한 논의는 청자 연구자들에게 항상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한반도 측 자료보다 중국의 자료에 관한 납득할 만한 객관적 사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며 이것을 상호 비교하면서 관찰할 만한 시공간적 여건 조성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2005년 朝鮮官窯博物館의 特別展《靑磁의 色形—韓·中靑磁比較展》에 출품된

<sup>23</sup> 사자빈신사지 탑 주변이 요지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원광대학교 김정희 교수님과 충북대학교 박은화 교수님이 확인해 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이곳은 가마터를 정지 후 그 영역 안에(가마터의 폐기물을 건너낸 다음) 탑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폐기물(가마벽 조각, 불에 익은 흙, 도침, 녹아 붙어 있는 청자 조각과 흙)이 탑을 중심으로 15m 안 지표상에 밀집 분포하여 확신이 가능하며, 하층 기단 중대석에는 1022년(顯宗13年, 太平 2年 4月)에 조성했다는 명문이 있어서, 청자요 운영 시기와 탑의 조성 시기가 어떻게든 연관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청자가마가 폐쇄된 이후 1022년에 동일 구역 안에 탑을 조성했을 경우, 두 번째는 탑을 조성한 1022년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운영되었을 경우, 세 번째는 청자가마 운영 기간과 관련 없이 다른 장소에서 1022년에 조성되었던 탑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장소로 이전되었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의 경우, 탑이 조성된 1022년에 사찰 내부에서도 가장 중심인 탑 바로 옆(15m 이내)에서 청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논외로 할 수 있지만, 세 번째의 경우 가능성을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교원대학교 정영호 교수님과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님께 문의한 바, 한결같이 탑을 이전했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으며 탑과 청자가마가 동일한 시기에 운영되었을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경우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다. 즉 청자가마가 운영되고 있던 시기나 아니면 폐쇄된 후 1022년에 탑을 조성한 것이 되며, 따라서 이 가마 출토 청자의 하한은 1022년이 된다.

최근 중국의 학술적 조사결과 수집된 절대편년을 갖는 월주청자들이 그러한 부담과 같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초기청자 연구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key words) — 塼築窯(Brick Kilns), 土築窯日(Mud kilns), 日暈底碗(The Bowl with a Pi-shaped Foot Ring), 先日暈底碗(The Proto-Pi-Shaped Foot Ring)

■ 투고일 2006년 7월 31일 | 심사일 2006년 8월 1일 | 심사완료일 2006년 8월 20일 ■

통일신라 청자를 의미하는 9세기 발생설은 중국 玉璧底碗과 전남 康津郡의 初期靑磁窯의 日暈底碗이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완이 중국 唐後期(8세기 후기-9세기 전기)에 유행했던 양식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이 완이 사라지기 전에 늦어도 9세기 중기에는 한반도에서 제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 기존에 9세기발생설과 달리 10세기 들어 五代 越州窯의 영향으로 先日暈底碗이 시작하고 이어 玉璧底碗과 똑같은 日暈底碗은 중국에서 유행이 끝난 1세기 이상 뒤에 리바이벌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五代前期에 매우 특수하고 예외적인 것을 방조했을 것이라는 10세기 발생설이 나왔다.

이에 대한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리요 제1기층 출토의 先日暈底碗은 唐末-五代에 越州靑磁의 玉環底碗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이 완의 굽 형태는 만당 9세기 중기 월주청자에서 가장 보편적인 굽에 가깝고 五代에 가면 접지면이 더 좁고 전체 비례가 더 오뎅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방산대요의 輪形底에 더 가까워진다. 따라서 선일훈저완 형식에서 방산대요의 윤형저로 변하는 것이 순리적인 변화라고 본다.

둘째, 日暈底碗이 중국 玉璧底와 관련 없다는 견해는 자료 분석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강진요의 초창기 內低曲面의 中國式 日暈底碗이 張保阜 島 유적(828-841년)출토 월주청자 大溼/狹幅式 玉璧底碗에 가장 가까워서 연관 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생겼다.

셋째, 墊圈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방산대요에서 이 기술이 적용된 것은 康陵(939년)시대 이전일 가능성은 아주 낮으며, 용인서리전축요(제1-2기층)나 토축요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점권 기술의 전파 이전에 서리요가 개요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ABSTRACT

# A New Argument on the Beginning Date of the Korean Celadon

**Choi Kun**

The theory of 9th century appearance meaning the blue celadon of United Shilla initiated from the recognition that Chinese Bowl with Jade-Round Bottom and the bowl with a pi-shaped foot ring of initial blue celadon kilns in Gangjin-gun, Jeonnam have very similar shapes. Based on the fact that was the popular style during the late Tang China (the late 8th century—the early 9th century), it is highly possible that it was made in the Korean Peninsula latest in the middle of the 9th century before the style completely disappeared in China.

However, in contrast to the theory of 9th century appearance, the theory of 10th century appearance emerged in the 2000s stating that the Proto-Pi-Shaped Foot Ring started with the influence of Yue zhou Kilns during the Periods of the Five Dynasties in the 10th century and the Bowl with a Pi-Shaped Foot Ring looking the same as the Bowl with Jade-Round Bottom was a revival one appeared after its popularity had ended longer than 1 century ago. The theory of 10th century appearance also speculates that very unique and exceptional styles were allow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the Five Dynasties.

First, the Proto-Pi-Shaped Foot Ring excavated from the primary layer of Sreri Kilns is fundamentally different from the Bowl with Jade Rim and Low Bottom of the Five Yue zhou Celadon Pottery Kilns from the end of Tang China to the Periods of Five Dynasties. The stem shape of the bowl is close to the stem shape that was the most widespread in Yue Zhou Celadon during the late Tang China, the middle of 9th century; and in the Periods of the Five Dynasties, it

became closer to the round bottom of Bangsandaek Kiln showing the narrower folding area and the sharp contour. Therefore, it is a legitimate change from the Proto-Pi-Shaped Foot Ring style to the round bottom of Bangsandaek Kiln.

Second,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suggestion that the Bowl with a Pi-Shaped Foot Ring has no relation to the Chinese Jade-Round Bottom is erroneous. The relation needs to be positively examined since the Chinese style Bowl with a Pi-Shaped Foot Ring of which inside is low and side is curved found in the early Gangjin Kiln is the closest one to Yue Zhou Celadon Bowl with Jade Rim and Low Bottom in the style of wide mouth and narrow body excavated from Jang Bogo Island relics (Years 828-841).

Third, Based on the analysis of engravings, it is very unlikely that the technique was applied in Bangsandaek Kiln before the period of Kangling (Year 939). The fact that it was not found in Yongin Seri Brick Kilns (the primary-secondary layers) or Mud Kilns can be the basis to enhance the possibility that Sreri Kilns was in operation before the engraving technique was spread.